

지지율 높은 민주당·관록의 현역의원 ... 치열한 '덧발 대결'

4·15 총선
D-100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6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해 벽두부터 지역정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고, 선거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변수도 늘어난 만큼 각 정당들의 선거전략도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압승 여부 못지 않게 정당 비례투표를 노린 야당들도 앞다퉀 각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등 지역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5일 지역정세에 따르면 제 21대 총선 D

광주·전남 18석 중 현재 민주 4·대안신당 5·바른미래 4·무소속 4·평화당 1석 확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선거연령 18세 등 변수 늘어 ... 정당투표 겨냥 득표전도 '후끈'

-100일'을 맞아 광주·전남지역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갔다.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연초부터 선거사무실 개소식과 출판기념회 등을 잇따라 열고 선거캠프를 꾸린 뒤 본격적인 경선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닌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를 열거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등 바닥 민심을 다지며 지역구 수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덧발인 호남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완패에 대한 설움을 다잡고 있다. 우선 민주당의 후

보 경선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탓에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각 선거구별로 민주당 후보군이 3~5명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후인 이달 중순 이후에나 공심위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가 많은 선거구는 컷오프 등을 통해 경선 후보를 압축할 것으로 보이며, 광주·전남 지역은 2월말께나 3월 초순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은 설 연휴(24일~27일)가 겹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경선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일으킨 '제3세력

의 바람'이 다시 불어 덧발을 사수할 수 있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에 따른 향후 야권 정계 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지역 총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로 꼽힌다.

현재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의석 18석 중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승리와 입당 등을 통해 4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안신당은 5석, 바른미래당 4석, 무소속 4석, 민주평화당 1석씩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며 바닥 민심을 다시 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광주지역 총선은 민주당 후보들과 야당 현역 국회의원 간 대결

이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또, 대다수 지역 현역들이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다선 의원 vs 신진 정치세력' 간 세대 교체 대결' 구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도 야당 현역의원들이 쌓아놓은 아성을 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무너뜨릴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지지 정당 한 곳을 고르는 '정당투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써 정당 득표의 위력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정의당 등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제대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정당들도 이번엔 '정당투표'를 노리고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최근 "광주지역 선거구에 중앙 당 차원에서 중량급 있는 인물을 선정해 줄

것"을 중앙당에 요구했고, 광주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1석, 두자릿수 정당 지지율'을 목표로 내걸고,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내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당 대표 등은 6일 5·18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현장 상무위원회를 여는 등 사실상 호남 표방 다짐에 나선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당 지지율이 높은 호남에서 이번 총선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다. 앞서 정의당에선 황순영 광주시장 여성위원장이나 최근 광주 복구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모든 광주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고, 향후 펼쳐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도 분위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21대 총선 카운트다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1일 앞둔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선거까지 남은 날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포근한 소한 ... 미세먼지 씻어내는 겨울비

이번 주 광주·전남에 겨울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광주·전남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6일 밤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30mm 수준이다. 6일부터 내린 비는 8일 오전에 그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광주·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의 영향을 받아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6일 광주·전남은 평년보다 기온이 3~5도 올라 낮 최고기온이 8도 이상으로 분포돼 포근하겠으며,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광주·전남 지역은 저기압과 기압골의 북상정도와 기온

에 따라 강수형태가 비에서 눈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지역 '싱크 탱크'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성과·창의 중심 기관 거듭나야

신임 원장 오늘까지 재공모

2020년 광주·전남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싱크 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성과·창의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광주·전남 산하기관, 정부부처 이전 연구기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총괄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통합 5년, 4·15 총선 등을 계기로 연구원 혁신 방안을 추진해 사·도는 물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박성수 전임 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신임 원장에 대한 재공모가 오늘(6일)까지 이어진다. 1차 공모에 광주·전남 모두 수긍할만한 인사가 지원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유력인사들이 원서 접수를 포기, 단 1명만 서류를 내면서 재공모에 들어갔다. 신임 원장은 4·15 총선, 통합 5년, 광주

성과 평가 시스템 전면 개편
실적 미흡 위원 패널리티 적용
임용과정 공정성 강화 등 시급

·전남 상생 위기 등 2020년의 여러 변수 속에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과 발전의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원 내 여전한 이질감을 해소하는 화학적 결합에 나서는 한편 고질적인 연구 질 저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의 가장 근원적인 기능인 지역 싱크탱크 자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기획과제, 정책과제, 지원과제, 수탁과제 등과 함께 논문집인 광주전남연구, 광전리더스인포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지역 정책 입안이나 국비 사업 발굴, 정부 및 정당 공약 반영 등에

어서 연구원의 기여도가 낮아 지자체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도가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 불만 표출 역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과제가 일부 연구위원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경우 과감한 패널리티를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위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연구원 내부에서 '업무 기피'와 '무사안일'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2~3건의 성과(단독)도 내지 못하는 연구위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구위원들에게 과제가 집중되면서 실적 채우기에 나서면서 수준 저하, 중복 과제 또는 발표, 표절 등 연구 윤리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이 3급 부이사관급(광역사·도 실국장급) 대우에 높은 연봉, 안식년제 등의 혜택을 보는 '철밥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곡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